

로보틱스 (Overweight)

CES 2026 전후 로보틱스 산업 투자 전략을 고민

[Issue Comment](#)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CES 2026 Preview: 예년 대비 로보틱스 산업의 존재감이 높을 것이며, 특히 휴머노이드의 실체 확인 가능

2026년이 밝았고, 국내외 로보틱스 섹터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 CES 개막 또한 임박했다. CES 2026은 2026.01.06~2026.01.09 (현지시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CES 2026 핵심주제, 주요 참가 기업, 혁신상 수상 업체 등 전반적인 CES 2026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중 국내 로보틱스 섹터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CES 행사 내 로보틱스 섹터, 특히 휴머노이드의 존재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실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매년 CES의 핵심 주제를 발표해왔고, 로보틱스라는 아젠다는 2~3년 전부터 꾸준히 포함되어 왔다. 그럼에도 해당 주제의 범위가 일부 물류 로봇을 비롯한 산업용 로봇에 국한되어 있었고, 참여 업체 또한 많지 않았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CES 2026에서는 중국 로보틱스 업체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고, 이는 상당 부분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Unitree Robotics 참가 예정). 두 번째는 국내 핵심 업체들의 로보틱스 관련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은 Boston Dynamics와 함께 CES 2026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개별 미디어 데이를 통해 향후 그룹 차원의 로보틱스 사업 전략 또한 발표할 계획이다. HI그룹 또한 액츄에이터, 물류로봇 등을 CES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 업체들이 행사 전면에 나선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민관 개발 협력체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는 CES 2026에 한국형 로봇관 부스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 중 액츄에이터를 비롯한 핵심 부품 관련 업체 로보티즈, 에스비비테크, 에이든로보틱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행사 기간 내 전반적인 국내 로보틱스 섹터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관찰되는 CES 전후 차익 실현 매물을 우려하는 시각 존재하나, 예년 대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CES는 매년 로보틱스 섹터의 주요 모멘텀으로 꼽히지만, 이와 동시에 행사 전후에 관찰되어 온 차익 실현 매물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예년 대비 CES 2026 기간 내 차익 실현 매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I에서 파생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CES 모멘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이다. Physical AI,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 기대와 달리 CES에 참여한 업체들은 산업용, 물류 로봇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이와 국내 업체와 연결 지점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작년까지 관찰된 CES 모멘텀 전후 차익 실현 매물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반면 CES 2026의 경우 2025년 국내 로보틱스 섹터를 지탱한 주요 논리 중 하나였던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주요 모빌리티 업체의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이 구체화될 것이며, 주요 소부장 업체 또한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등 오히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된다.

2026년은 주요 업체의 휴머노이드 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Value Chain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

2026 로보틱스 섹터 투자의견을 Overweight으로 유지한다. 2025년 로보틱스 섹터를 지지해온 논리는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따른 액츄에이터 수요 증가일 것이다. 2026년에도 이는 계속될 것이나, 이에 더해 주요 휴머노이드 완제품 업체의 벨류체인의 존재감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현대차그룹 외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업체들은 CES 행사 내 주요 로보틱스 관련 제품 및 로드맵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고, CES 2026 행사와 별개로 휴머노이드 제품 개발 속도 또한 높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통한 제품 개발 현황이 올해 3월 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 신규 공장 및 사옥 완공), 과거 웨어러블 로봇 봇핏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 또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의 경우 전반적인 제품 개발 속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공개된 에스피지와의 액츄에이터 공급 논의 등 휴머노이드와 관련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전자의 경우 지분 투자를 집행한 바 있는 서비스로봇, 산업용 로봇 업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주요 업체별 CES 체크포인트 정리: 예년 대비해서 대기업들의 로보틱스 관련 존재감이 높을 것이며, 휴머노이드에 대한 실체를 주요 부품 업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

업체명	주요 내용
주요 업체별 CES 2026 로보틱스 산업 관련 체크 포인트	
현대차그룹	Boston Dynamics와 함께 2년만에 CES2026에 참가. Boston Dynamics의 Atlas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 제품을 시연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현대차그룹의 향후 로보틱스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디어 데이의 주제가 '실제 제조 현장 내 실증'이라는 점에서, 양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됨
HL그룹	HL만도 (액츄에이터), HL로보틱스 (주차 및 물류로봇) 등 그룹 내 주요 로보틱스 관련 제품을 공개할 예정. 특히 지난 연말부터 HL만도에게 향하고 있는 액츄에이터 관련 기대감을 실제 제품으로 답할 수 있을지에 주목
LG전자	가정에서 사용되는 홈로봇 클로이드 공개 예정.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기본적인 가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텍스트러스 형태의 작업부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LG전자 또한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지향한다는 방증
삼성전자	경쟁 업체 대비 로보틱스 제품의 존재감은 크지 않을 것. 오히려 C랩 (삼성전자 육성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 업체에 주목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내 CES 2026 참여 가능성성이 높은 업체	
에스비비테크	휴머노이드용 감속기 레퍼런스는 아직 미진하나, 삼성전자 공급 레퍼런스를 통해 추후 주목받을 가능성 존재
로보티즈	Boston Dynamics 외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 특히 OpenAI를 비롯한 주요 테크 업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어 CES 기간 내 관련 경쟁력에 대한 관심 높을 것
에이дин로보틱스	휴머노이드용 텍스트러스 등에 활용되는 센서 공급 업체. 2027년 상장을 목표하고 있어 CES 행사 중 벤류에이션 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홍보 및 주요 파트너 업체를 공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
CES 2026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주목해야 할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	2026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 임박 및 삼성전자 차원의 휴머노이드 사업 전략 또한 시장에 공유될 것으로 전망
원익로보틱스	Meta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형 제품 공급 레퍼런스 보유. 텍스트러스에 대한 시장 기대가 집중된다는 특징
뉴로메카	협동로봇에 기술 기반을 두고 있으나, 최근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사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업체로 시장 재평가 가능성 존재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구동부 관련 기술의 휴머노이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높게 점쳐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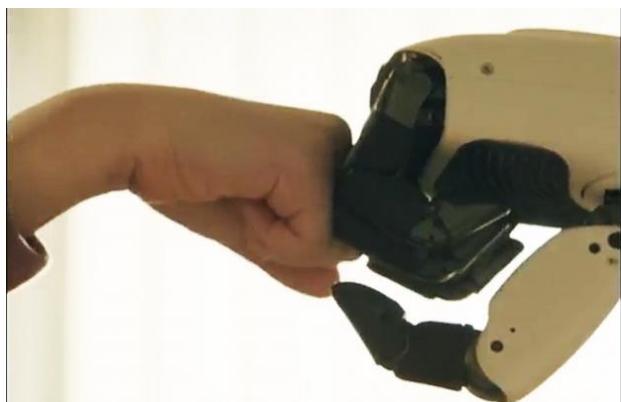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CES 2026에서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그룹의 미디어데이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과 제품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



자료: 현대차그룹,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LG전자는 텍스트러스 형태의 작업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홈로봇 클로이드를 CES 2026에서 공개할 예정



자료: LG전자,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주요 업체별 2026년 휴머노이드 관련 체크포인트 및 Value Chain 정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2026년 국내외 로보틱스 섹터 업황 전망

2026년 상반기 국내 로보틱스 주가 및 업황	2026년 하반기 국내 로보틱스 주가 및 업황																				
<p>국내 모멘텀</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승요인</th> <th>하락요인</th> <th>상승요인</th> <th>하락요인</th> </tr> </thead> <tbody> <tr> <td>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관련 과제 구체화</td> <td>주요 휴머노이드 업체 개발 일정 지연</td> <td>주요 부품 업체 CAPA 증설 일정 시작</td> <td>주요 부품 업체의 휴머노이드 매출 발생 시점 지연</td> </tr> <tr> <td>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시제품 공개</td> <td>주요 부품 업체들의 본업 실적 개선 지연</td> <td>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양산</td> <td>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td> </tr> <tr> <td>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업 및 자체 생산 공장 완공</td> <td>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국내 시장 침투 현실화</td> <td>국내 협동로봇 업체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td> <td>휴머노이드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속도 더딜</td> </tr> <tr> <td>트럼프 행정부 로봇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td> <td></td> <td>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td> <td></td> </tr> </tbody> </table>		상승요인	하락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관련 과제 구체화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 개발 일정 지연	주요 부품 업체 CAPA 증설 일정 시작	주요 부품 업체의 휴머노이드 매출 발생 시점 지연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시제품 공개	주요 부품 업체들의 본업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양산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업 및 자체 생산 공장 완공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국내 시장 침투 현실화	국내 협동로봇 업체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휴머노이드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속도 더딜	트럼프 행정부 로봇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	
상승요인	하락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관련 과제 구체화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 개발 일정 지연	주요 부품 업체 CAPA 증설 일정 시작	주요 부품 업체의 휴머노이드 매출 발생 시점 지연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시제품 공개	주요 부품 업체들의 본업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양산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업 및 자체 생산 공장 완공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국내 시장 침투 현실화	국내 협동로봇 업체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휴머노이드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속도 더딜																		
트럼프 행정부 로봇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																			
<p>2026년 하반기는 현대차그룹보다 삼성전자 국내 로보틱스 업황의 이벤트를 제시할 것. 이에 따른 레인보우로보틱스 외 관련 종목 주가 상승세 강될 것.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지원 정책에 따라 유의미한 미주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업체 (두산로보틱스) 등 2025년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체의 재평가 또한 전망.</p>																					
<p>2026년 하반기는 현대차그룹을 위시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국내 로보틱스 업황의 이벤트를 제시할 것. 시제품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용 제품에 대한 평가가 관찰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공급망 포함 유무도 결정될 것. 또한 로보티즈 등 주요 소부문 업체의 신규 공장 증설이 시작됨에 따라 미래 실적의 현재 가치화를 논하는 시장 의견도 관찰될 전망.</p>																					
<p>글로벌 모멘텀</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승요인</th> <th>하락요인</th> <th>상승요인</th> <th>하락요인</th> </tr> </thead> <tbody> <tr> <td>Tesla Optimus Gen 3 공개</td> <td>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td> <td>Tesla Optimus Gen 3 생산공정 투입 및 양산</td> <td>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td> </tr> <tr> <td>Unitree Robots 외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상장</td> <td>전통 로보틱스 업체들의 실적 부진세 지속</td> <td>nVIDIA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GROOT 판매 시작</td> <td>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td> </tr> <tr> <td>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양산체계 완성</td> <td>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전반적인 양산 일정 연기</td> <td>Figure AI BotQ (생산공장) 내 제품 양산 돌입</td> <td>일본 소부문 업체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td> </tr> <tr> <td>Boston Dynamics 양산 논의 구체화</td> <td></td> <td>Boston Dynamics 상장 논의 구체화</td> <td></td> </tr> </tbody> </table>		상승요인	하락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Tesla Optimus Gen 3 공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Tesla Optimus Gen 3 생산공정 투입 및 양산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Unitree Robots 외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상장	전통 로보틱스 업체들의 실적 부진세 지속	nVIDIA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GROOT 판매 시작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양산체계 완성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전반적인 양산 일정 연기	Figure AI BotQ (생산공장) 내 제품 양산 돌입	일본 소부문 업체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	Boston Dynamics 양산 논의 구체화		Boston Dynamics 상장 논의 구체화	
상승요인	하락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Tesla Optimus Gen 3 공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Tesla Optimus Gen 3 생산공정 투입 및 양산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Unitree Robots 외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상장	전통 로보틱스 업체들의 실적 부진세 지속	nVIDIA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GROOT 판매 시작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양산체계 완성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전반적인 양산 일정 연기	Figure AI BotQ (생산공장) 내 제품 양산 돌입	일본 소부문 업체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																		
Boston Dynamics 양산 논의 구체화		Boston Dynamics 상장 논의 구체화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시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12-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0.6%	9.4%	-